13~14세기의 대장경 인출·유통과 고려대장경*

강 호 선**

1. 머리말
2. 13~14세기 고려에서의 대장경 인출과 유통
  1) 13~14세기 대장경 인출·유통 사례와 전장법회
  2) 14세기말 해인사의 대장경 인출 문제
3. 고려와 금·원의 불교 교류와 대장경 유통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대장경 조성은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려의 대장경 조성은 송 그리고 요와의 대장경 교류를 통해 가능했는데, 983년 완성된 北宋藏[開寶藏]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려에 수입되었고, 遼藏[契丹藏] 완성 뒤인 문종 이후에는 요장도 고려로 전래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성종~선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용된 북송장과 요장은 초조대장경 간행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요장은 초조대장경 조조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고려로 전래되었고, 재조대장경 조조시 고려전기 들어온 북송장과 요장은 초조대장경과 함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19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9년 11월 15일에 개최한 「동아시아 불교와 고려대장경」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께 대교본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초조대장경이나 재조대장경이 판각된 후 얼마나 간행·유통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초조본이나 재조본이 고려시대에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로는 얼마나 유통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또한 국가에서 頒賜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고려시대 인출된 고려대장경 중 인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물이 함께 확인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현전하는 실물의 경우 일본에서 확인되는 인출본은 비교적 많은 반면 국내에서 발견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중국에서 고려대장경 인출본의 실물이 발견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일본에서 확인되는 고려대장경 인출본은 고려시대에 전래된 것보다는 조선전기 조선과 일본의 외교의 일환으로 전해진 것들이 많은 편이다.[1)]

현재 고려후기 대장경 즉 13~14세기의 대장경에 대한 연구는 재조대장경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구성과 내용, 각판의 주체와 장소, 참여방식과 제작방법 등 재조대장경 자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 중이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 남아 있는 대장경 인출본을 바탕으로 한 실물조사도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만큼 재조대장경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13~14세기라는 환경 속에서의 대장경 문제이다. 즉 "재조대장경" 이후의 고려시대 대장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는 않다. 또한 재조대장경 조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서인지 고

1) 재조대장경의 제작과 인출, 그리고 일본으로의 전래에 대해서는 역사학, 서지학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성과가 집적되어 있다. 관련된 연구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대장경의 묵서 등을 소개하고 있어 실물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자들에게 자료집 혹은 목록집으로서의 도움을 주는 연구성과를 포함하여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를 몇 편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권희, 2002『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박상국 외, 2008『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일본 대곡대학 소장 고려대장경』국립문화재연구소; 박용진, 2012「고려후기 원판대장경 인성과 유통」『중앙사론』35; 유부현 외, 2015『고려 재조대장경과 동아시아의 대장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박용진, 2015「고려대장경의 정치・사회적 기능과 의의」『동국사학』59; 馬場久幸, 2016『日韓交流と高麗版大藏經』, 法藏館; 九州國立博物館, 2019『版経東漸』.

려대장경보다 먼저 판각된 “金藏[趙成藏]”, 그리고 원에서 판각된 대장경에 대한 관심도 국내학계에서는 많지 않은 편이다. 13~14세기의 고려와 중국은 처음으로 대장경을 판각하고 유통했던 “초조대장경 세대”[2]와는 달리 이미 판각과 유통의 경험이 있었고, 각기 자체의 대장경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13~14세기에도 대장경은 조성되고 유통되고 있었다. 오히려 국제적 인출과 유통은 “초조대장경 세대”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다. 이 글에서는 “초조대장경 세대” 이후, 특히 재조대장경 판각 이후 1392년 조선건국 전까지 확인되는 재조대장경 및 藏經의 인출사례를 기록과 실물로 살펴보고[3] 고려-금・원 간의 대장경 유통 문제를 다루려 한다. 대장경 연구는 역사학 및 서지학 분야의 선학들에 의해 목록의 정리 및 새로운 자료의 집적과 소개 그리고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져 왔던 분야인 만큼 선행연구에 의지하되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사례가 일부 추가되었다. 실물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논문을 작성해야 했으나, 일본과 중국 등지에 전하는 대장경을 일일이 살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존 연구성과와 전시도록[4] 등으로 자료를 살필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

2)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초조대장경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고려에서의 재조대장경 제작은 대장경을 제작하여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으나, 몽골에 의한 초조대장경판 소실이 판각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 소실 이전까지 고려에서의 대장경 인출은 초조대장경의 인출을 말하며, 재조대장경 판각 이후 고려대장경 인출은 재조대장경판의 인출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초조대장경 세대”는 고려를 기준으로 하면 “초조대장경”이 판각되어 소실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대장경은 “북송장”과 “요장”이 있다.

3) 현재 기록에서 확인되는 인출기록은 재조대장경 판각 이후 이루어진 대장경 인출 중 일부만이 전하는 것이어서 전체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사례도 몇 건 되지 않지만 당시 정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고려시대 대장경 혹은 장경을 인출했다는 것이 모두 고려대장경 인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인사의 사례처럼 사찰에서 판각한 경판이 봉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 들어온 대장경의 복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4) 14세기 동아시아 대장경 교류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전시는 2019년 10월 29일~12월 22일까지 개최된 일본 九州國立博物館 特集展示 “版経東漸”이다.

2. 13~14세기 고려에서의 대장경 인출과 유통

1) 13~14세기 대장경 인출·유통 사례와 전장법회

초조나 재조 모두 판각 이후 간행, 유통된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를 보면 초조 인출본이 유통되는 고려전기와, 재조 인출본이 유통되는 고려후기의 대장경 인출 및 국내유통은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초조나 재조 모두 왕명에 의한 인출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판각 이후 왕명에 따라 여러 차례 대장경을 인쇄하여 여러 절에 반사했던 것이다. 대신 초조대장경의 경우 개인적인 인출 사례는 드문 편이다. 초조본의 개별 인출사례로는 1046년(정종 12) 金海府戶長이자 禮院使인 許珍壽의 대장경 시납, 1053년(문종 7)경 圓融國師 決凝이 安國寺에 대장경 한 부를 印寫하여 봉안, 1131년(인종 9) 南原郡夫人 梁氏와 남편 閤門祗候 金公偁이 天神寺에 대장경 5천여권 인성하여 봉안한 것 등이 확인된다.[5] 이 가운데 허진수가 시납한 대장경만 현재 일본 安國寺에 소장되어 있고,[6] 다른 두 건은 인출 기록이 금석문으로만 전할 뿐 실물이나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현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려후기의 경우 왕명에 의한 인출과 반사 사례 못지않게 상대적으로 개인적 인출도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인출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원간섭기 원과의 대장경 유통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다만 판각과 보관에 대한 기록이 초조보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재조대장경임에도 불구하고 재조대장경을 판각하면서 몇 부의 대장경을 인쇄하여, 어떻게 頒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재조대장경 판각 후 13~14세기 고려에서 몇 차례나 다시 인출되었는지,[7] 인출의 구체적 이유나 인출 주체, 배

---

5) 초조장의 私印 사례는 다음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박용진, 2015「고려대장경의 정치·사회적 기능과 의의」『동국사학』 59, 183-184면).

6) 허진수는『대반야바라밀다경』을 인출하였다. 허진수 인출본의 묵서지어는 남권희, 2002『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1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조선전기의 경우 일본, 대마도 및 류큐국과의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요청으로 재조대장경을 일부 인출하여 주기도 했고, 때로는 왕실의 필요에 의해 인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외교적인 차원이나 왕실의 필요에 의해 대장경을 인출할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에

경, 비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관련된 자료를 통해 재조대장경 판각 후 대장경을 인출하여 여러 사찰에 반사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대장경 인출이 비교적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며, 13세기보다는 14세기 인출 기록이 주로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런 점에서 閔漬가 찬술한 「高麗國大藏經移安記」[8]는 재조대장경 조조 이후의 인출 및 頒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고려국대장경이안기」에 의하면 1306년(충렬왕 32) 강화도 普門社에는 대장경이 3부 있었는데, 그 중 2부는 君臣이 봉안한 것이고, 다른 한 부는 許評과 부인 廉氏가 인출하여 봉안한 것이었다. 「고려국대장경이안기」에서 민지는 사경과 인출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대장경이 모두 있고, 인출본으로는 宋本, 遼本과 함께 鄕本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당시 名刹에 유행하는 것은 鄕本이라 하여 고려본을 인출한 대장경이 고려의 여러 사찰에 봉안되어 있었음도 알 수 있다.[9] 「고려국대장경이안기」는 재조대장경 판각 이후 인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전거이다. 즉, 보문사의 사례처럼 재조대장경은 판각 후 여러 부가 인출되어 각 사찰에 봉안되었고[군신이 봉안한 2부],[10]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출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는 지배층이 사적으로 인출하는 경우[허평 부부가 인출한 1부]도 있었던 것이다.

보문사는 강화도에 부속된 섬에 있었으므로 강화천도기 대장경 봉안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본토에 있던 사찰까지 본격적인 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11] 일례로 李承休(1224~1300)가 만년에 삼척

간략하게나마 수록된 경우들이 있어 인출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더라도 인출 이유나 시기, 규모나 비용의 대강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8) 閔漬, 「高麗國大藏經移安記」(장동익 편, 1997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출판부, 92-93면)에 수록되어 있다. 장동익은 『天下同文』에 수록된 「대장경이안기」를 전거로 했는데, 자료 자체의 존재는 허흥식에 의해 먼저 알려졌다(허흥식, 1986 「1306년 고려국대장이안기」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이 비석은 강원도 금강산에 세워졌었다고 한다.(오용섭, 2002 「『高麗國大藏移安記』에 대한 考察」 『서지학연구』 24, 63면).

9) 향본 즉 고려본은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 그리고 여러 사찰에 있던 사간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군신이 봉안한"이라는 표현에서 재조대장경 인출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두타산에 별서로 容安堂을 짓고 살면서 인근 三和寺에 있던 藏經을 빌려 읽었다는 「頭陀山看藏庵重營記」의 기록은 삼화사에 대장경에 봉안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12] 이승휴가 두타산에 있던 시기는 충렬왕 때이며, 삼화사가 신라 하대 이래의 오랜 연혁을 가진 삼척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던 만큼 삼화사에 언제부터 대장경이 있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다. 즉 대몽항쟁 이전부터 있던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판본이 초조본인지 재조본인지 혹은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었는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다. 고려중기 중국에서 수입한 대장경이 대몽항쟁기 이후에도 보존되어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가 전하기 때문이다.

예종 때 慧照國師 曇眞이 송에 갔다 돌아오면서 遼本大藏經 3부를 가지고 왔는데,[13]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할 때까지도 정혜사, 해인사, 허참정댁[14]의 세 곳에 봉안되어 있었다.[15] 이 가운데 定惠寺 즉 定慧寺에 봉안된 대장경은 1278년(충렬왕 4)부터는 송광사로 봉안처가 옮겨졌고, 송광사에서는 대장의 관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寶를 운영하였다. 송광사에 있던 요본대장경에 대한 13세기 말의 일련의 기록을 통해 인출 대장경의 사찰 간 이동, 관리를 위한 재정운영,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보완 등 대장경의 보수 및 유지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 예종 때 담진이 가지고 온 대장경은 1278

11) 강화천도기 재조대장경을 완성한 뒤 인출본을 봉안할 수 있는 사원은 강화지역 내에 소재한 사원에 한정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오용섭, 2002 앞의 논문, 84면), 대장경이 지방의 分司에서 판각되었고, 여기에 지방의 여러 사찰이 참여했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대장경 반사 지역이 강화도에만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2) 崔瀣, 「頭陀山看藏庵重營記」 『拙藁千百』 권1.

13) 담진이 가지고 온 요본대장경에 대해서는 오용섭, 2004 「慧照國師 購來의 遼本大藏의 봉안」 『서지학연구』 27에 자세히 다루었다. 한편, 요장 즉 요나라 관판대장경은 遼大字藏과 遼小字藏 두 종류가 있으며, 수기가 재조대장경 조조시 참고한 것은 대자장, 담진이 가지고 와 송광사에 봉안한 것은 소자장으로 보는 최근의 연구가 있다[方廣錩(박순희 옮김), 2015 「요장 판본과 요소자장遼小字藏 현존본」 『고려 재조대장경과 동아시아의 대장경』,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3면].

14) 허참정은 許珙으로, 그는 부인과 함께 1304년 이전에 강화 보문사에 재조대장경을 봉안했던 인물이다(오용섭, 2004 앞의 논문, 21-23면). 허공 내외의 강화 보문사 대장경 봉안에 대해서는 본 논문 3장 참조.

15) 一然,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 「前後所藏舍利」 "本朝睿廟時 慧照國師奉詔西學 市遼本大藏三部而來 一本今在定惠寺[海印寺有一本 許參政宅有一本]"

년 음력 11월 6일 定慧寺에서 송광사로 옮겨졌고[16] 이후 송광사에서는 비용을 마련하여 경전을 보수하였다.

가) 제자가 삼가 듣건대, 옛것을 수선하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 배나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禪源寺에 우거할 때부터 수선하려는 마음을 내었고, 松廣社로 옮긴 뒤에는 더욱 온전히 복구해 보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函과 卷이 빠진 것은 印行하여 완전하게 만들고, 字와 行이 부족한 것은 글자를 써넣어서 갖추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施主의 돈을 얻어서 그 목록을 쓰고, 궁중의 폐백을 받아서 표지를 장정한 뒤 琅函에 담아 寶藏에 봉안하였습니다.[17]

나) 수선사 사주 乃老가 所志하시되, 〈중략〉 나의 生父 禮賓卿 梁宅椿에게 죽은 宰臣 鄭晏의 婢인 世屯의 所生婢 古次左의 몸과 이 비의 소생들을 官文을 작성하여 주신 바로써, 이 古次左 婢 長所生 奴 逸三의 몸은 同生弟 別將 梁弼이 傳持하여 사용하고 生父에게 賜給하신 후에 (1자 불명) 生長한 所生奴인 巾三의 몸으로 나에게 부리게 하였거늘, 내가 發願修補하여 本社에 봉안한 契丹本大藏經寶에 이 건삼의 몸을 所生과 함께 예속시킨 바로, (이에 향후) 다투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거든 금지하고 영구히 수선사에 속하도록 하심.[18]

위의 자료 가)는 수선사에서 圓悟國師 天英이 요본대장경 수리와 봉안을 마친 뒤 거행한 낙성의식의 소문으로 冲止가 쓴 글이며, 자료 나)는 1281년(충렬왕 7) 乃老 즉 수선사 5세 천영이 생부 예빈경 양택춘에게 받은 奴와 그 소생을 수선사 丹本大藏經寶에 예속시키고자 한다는 소지를 올린 것에 대해 趙仁規가 왕의 허락을 받고 왕명을 받들어 인증해준 문서이다.[19] 앞의 『삼국유사』의 기록과 가), 나)를 함께 살펴보면 혜소국사가 가지고 온 요본대장경은 정혜사에 있다가 충렬왕대 당시 수선사 사주였던 천영의 발원으로 수선사에서 보수되어 최종 봉안되었다.[20] 비용은 시주로 마련되었는데, 여기에는 왕실에서의 시주도 함께 이

16) 冲止, 「戊寅十一月六日 率衆出山 明日分負藏經廻有偈」 『圓鑑國師集』(『韓國佛敎全書』 6, 376면).

17) 冲止, 「丹本大藏慶讚疏」 『圓鑑國師集』. 번역은 이상현 번역을 따랐다(이상현 옮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고려 2-원감국사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354면).

18) 노명호 외, 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上)』, 서울대학교출판부, 20면.

19) 위의 책, 18면.

20) 요본대장경이 선원사에서 정혜사를 거쳐 수선사로 옮겨졌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오용

루어졌고, 영구히 대장경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위해 보가 갖추어졌음이 확인된다. 특히 자료 나)는 사찰에서 대장경을 관리하기 위해 보를 운영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강화도 龍藏寺에서 彌智山 龍門寺로 이안된 대장경은 강화에서의 대장경 인출과 봉안, 그리고 누락된 대장경의 보충과 보수, 대장경을 갖추기 위한 모연 활동, 다른 절로의 대장경 이안 등 고려후기 대장경 인출본의 관리와 활용의 일단을 보여준다.

다) 이 대장경 1부는 某官 某가 시주한 것이다. 맨 처음에는 江華府의 龍藏寺에 안치하였는데, 이는 뜻밖에 일어나는 재앙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경인년(1350, 충정왕 2) 이후로 왜적이 바닷가의 郡邑을 계속 침범하였는데, 강화는 요충지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더욱 많이 받았다. 具氏의 손녀가 죽고 萬戶인 印瑞의 부인이 죽자 宰臣인 吳子淳의 부인이 계책을 내기를, "우리 할아버지께서 佛法에 귀의하여 대장경을 시주하셨는데, 불행히도 왜적에게 유린당한 나머지 거의 태반이나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어찌 이를 보충해서 복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敬天寺로 대장경을 옮긴 뒤에 표제를 붙이고 함 속에 넣어 종전의 것을 완전히 새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 말하기를, "이 절이 또 바다와 가깝고 용장사와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으니, 깊은 산골짜기에 보관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였다. 그때 마침 미지산의 智泉 등이 대장경을 갖추기 위해 서울에서 시주를 구하고 있었는데, 구씨가 기뻐하며 그 사연을 털어놓으니 지천 등도 큰 보배를 얻게 된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천 등으로서는 특별히 한 일도 없이 뜻을 이루게 되었고, 대장경 또한 돌아갈 곳이 있게 되었으니, 대장경을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더 이상 마음 쓸 일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용문사의 입장에서는 절이 생긴 이래로 아직 갖추어 놓지 못한 일을 한번에 이룰 수가 있게 되었고, 구씨 자손의 입장에서는 백세토록 대장경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게 되었음은 물론, 지하에 계신 선조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제는 용문사의 天龍八部가 마치 眼目을 보호하듯 대장경을 마땅히 보호하게 될 것이니, 구씨야말로 후손된 도리를 제대로 했다고 말할 만하다.[21]

섭, 2004 앞의 논문, 15면), 정혜사의 창건주는 요본대장경을 가지고 온 慧照國師 曇眞이었기 때문에 요본대장경의 당초 소장처는 선원사가 아니라 정혜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선원사가 강화도에 세워진 뒤 천영이나 충지 등 역대 수선사 사주들이 선원사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대장경 보수를 선원사에 있을 때부터 대장경 보수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위의 자료 다)는 미지산 용문사에 3칸 규모의 대장전을 짓고 대장경을 봉안하게 된 유래에 대해 1378년(우왕 4) 李穡이 지은 글이다. 미지산 용문사에 봉안된 대장경은 원래 강화도 용장사에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아 재조대장경 인쇄본으로 추정된다. 다)에서 처음 용장사에 대장경을 시주했다는 某官 某는 자료로 보건대 吳子淳의 妻祖父이자 만호 인당의 처와 혈연관계에 있으며, 구씨 성씨의 손녀를 두었었다. 인당의 처는 崔安道의 장녀이다. 최안도는 奉翊大夫 具藝의 딸과 혼인하였으므로,[22] 다)에서 말하는 만호 인당의 처는 具藝의 외손녀가 된다. 오자순 처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다)를 통해 그 역시 대장경을 시주한 某官 某의 손녀임은 확인되나 "大父"라는 원문의 표현만으로는 그녀의 성씨가 具氏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를 정리해 보면 용장사에 대장경을 시납한 某官 某는 구예일 가능성이 있으며, 구예의 內外孫女들이 대장경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용문사로의 대장경 이안이 완료된 것을 두고 이색이 "구씨자손이 후손된 도리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 역시 애초에 대장경을 용장사에 봉안했던 인물이 구씨이며, 이후의 대장경 관리가 그의 후손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었다. 오자순은 1332년 충혜왕의 嬖臣이라고 削職 후 해주에 杖流되었다가, 복직 후에는 1349년(충정왕 1) 典理判書에 임명되는 등 14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오자순의 활동 시기로 볼 때 오자순의 처조부가 대장경을 강화도 용장사에 시주한 것은 강화천도기 재조대장경의 시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는 고려시대 대장경의 인출과 보충 그리고 이안의 일련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용장사에 있던 대장경이 개성 경천사로 와서 보

21) 李穡, 「砥平縣彌智山龍門寺大藏殿記」『牧隱文藁』 권4 "大藏一部 某官某之所施也 始置于江華府龍藏寺 避不虞也 自庚寅歲 倭人犯濱海郡邑 而江華當要衝 尤被其害 具氏孫女卒 萬戶印璫室卒 宰臣吳子淳室謨曰 吾大父歸依大法而施大藏 不幸爲賊所躪 亡失者幾半 盍補正之 於是 移之敬天寺籤題函藏完舊若新則又曰 玆寺又近水 去龍藏一間爾 莫如深山密谷之爲可保也 適彌智山智泉等化大藏于京中 具氏喜而告其故 泉等樂其得大寶。於是 無爲而成 得有所歸 施受可謂兩無心矣 而龍門有寺以來未備之事 一且而集 具氏之子孫 雖百世無復有憂於大藏 且以慰乃祖之靈於冥冥之中 則龍門天龍八部 當護大 如護眼目矣 具氏可謂能後矣."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22) 「崔安道墓誌銘」(김용선, 2006 『개정판 역주 고려묘지명집성(하)』, 한림대학교출판부, 879면).

충 및 보수가 된 뒤 다시 용문사로 이안되는 배경에는 절을 짓고도 대장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대장경을 봉안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 되어 있었던 용문사의 간절함이 있었다. 고려말 사찰에 대장경을 안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대장경을 봉안하거나 대를 이어가며 대장경을 관리하는 것은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는 일[以慰乃祖之靈於冥冥之中]이며, 후손된 도리[具氏可謂能後]였으니 불교적인 "효"를 실천하는 방법이었던 셈인데, 다)에서 보듯 이러한 불사를 내외손녀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이처럼 고려시대 대장경은 절이라면 응당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시주자의 입장에서는 "효"의 한 방법이었으므로 이러한 이유에서 대장경의 私印과 여러 사찰의 대장경 봉안이 이루어졌다.

충숙왕대의 대장경 인출을 전하는 「靈鳳山龍岩寺重創記」(朴全之)[23]는 사찰에서 기왕에 소장하고 있던 대장경의 누락본이 발생했을 때, 재조대장경에서 해당 부분을 인출하여 보충하였음을 보여준다. 용암사의 대장경 인출은 이곳이 국통 丁午의 下山所로 정해진 뒤 대대적인 중창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기록은 대장경 보충이 왕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며, 누락된 대장경의 보충 방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1318년(충숙왕 5) 중창공사를 담당했던 鹽場別監 李白經과 方于楨은 왕명으로 용암사에 있던 대장경도 보충하였는데, 이를 위해 雪牋紙 3만여장, 漆函 140여개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이 불사는 대장경 전체를 인출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대장경 중에서 누락되었던 함[闕函]·권[闕卷]·장[闕張]에 대한 보충이었다. 정오의 제자들이 江華板堂 즉 강화도에 있던 판당에 가서 궐함·궐권·궐장을 인출하여 절에 있던 舊本과 합하여 600여함을 만들어 새로 만든 전각에 안치하였는데, 이 600여함에 들어간 대장경 모두 표지는 黃紙를 사용하였고, 황색 비단[黃絹]으로 쌌다.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면서 표지와 포갑 등도 새로 보수하였던 듯 하다.

용암사의 사례에서처럼 사찰을 새로 중창하면서 대장경을 봉안하는 전각을 짓고 대장경을 온전하게 갖추는 것은 고려후기 사찰 중수나 중창에서의 중요한 불

23) 朴全之, 「靈鳳山龍岩寺重創記」 『東文選』 권68.

사였다. 비슷한 사례는 檜巖寺에서도 확인된다. 회암사의 대장경 봉안은 용암사처럼 구체적이지는 않고, 회암사에 봉안된 대장경이 재조본인지 혹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지만 나옹혜근이 회암사를 중창하면서 西方丈 서쪽에 3칸 규모의 大藏殿을 조성했음은 중창 당시의 가람배치에서 확인된다.[24] 이로써 회암사에서도 중창 과정에서 새로 대장전을 조성하여 대장경을 안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암사나 회암사는 왕사 혹은 국통(국사)의 하산소라는 위상을 가진 절이었다. 왕사나 국사의 하산소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는 사찰로서 사격이 높았는데,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찰의 장엄에 대장경은 필요한 요소였다.

한편, 국가나 왕실과 관련된 중요 사찰 외에도 개인이 중창하거나 후원하는 사찰에서도 대장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였다. 고려말의 빈번한 사찰 중창공사와 함께 대장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음은 다음의 사례들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崔文度 집안에서 天和禪寺에 봉안한 대장경은 실물이 남아 있는 재조대장경 중 가장 오래된 사례라는 점, 그리고 개인의 재조대장경 인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사례이다.[25] 이 대장경은 현재 일본 대마도 金剛院에 있는데, 조선시대 대마도로 건너간 대장경 중 하나이다. 현재는『대반야바라밀다경』일부가 남아 있으며,『대반야바라밀다경』권561의 권말에는 라)의 묵서와 함께 "天和寺大藏"이라는 朱印이 찍혀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충선왕 발원 대장

24) 李穡,「天寶山檜巖寺修造記」『牧隱文藁』권2.

25) 해당 대장경의 존재는 바바 히사유키 선생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일본 九州國立博物館 "版経東漸" 전시에서 실물을 확인하였다. 해당 전시도록의 사진을 통해 간행 당시 墨書 발문을 볼 수 있다(九州國立博物館, 2019『版経東漸』, 29면). 이 대장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小松勝助, 2007「「天和寺」藏書印のある高麗版大般若波羅蜜多經 -對馬にのこる大陸系の文物の一例」『문화사학』27; 馬場久幸, 2019「金剛院所藏の高麗版『大般若波羅蜜多經』-墨書, 奥書, 藏書印の檢討を中心として-」『석당논총』75. 최문도 부자가 인출한 이 대장경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는 小松勝助의 논문에 있으나, 묵서와 오서 등을 분석하여 금강원에 소장된『대반야바라밀다경』인출과 유통 전반에 대한 검토는 馬場久辛의 논문에서 볼 수 있으며, "版経東漸" 전시에서는 최문도 묵서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경에 瀋王印이 찍혀있다거나 최문도 집안의 인출본에 소장처인 “천화사대장” 주인이 있는 것은 대장경 인출 후 인출자나 봉안처의 주인을 찍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 先考光陽郡崔文簡公諱誠之 與先妣馬韓國大夫人金氏 同發願許造一大藏經 事巨未就 而相次下世 文度泣血 繼述今已 捌置先公所營天和禪寺 恭願三寶 〈중략〉 至元四年戊寅八月日男前正順大夫千牛衛上護軍文度謹識[26]

라)의 묵서를 통해 최성지(1265~1330) 부부가 대장경 인출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아들인 최문도가 계승하여 1338년(충숙왕 복위 7) 완성하고, 이 대장경을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찰 즉 아버지의 원찰인 천화선사에 봉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문도가 인출하여 천화사에 봉안한 대장경 중『대반야바라밀다경』권219는 1334년(충숙왕 복위 3) 간행한 것이어서[27] 인출 자체만도 여러 해가 걸린 대불사임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전하는 묵서로 간행시기를 정리해 보면 권219는 1334년 6월, 권561은 1338년 8월, 권578은 1338년 7월이어서 권차대로 인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28]

한편, 1328년(충숙왕 15) 崔瀣가 찬술한「禪源寺齋僧記」에 의하면 최성지는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天和禪寺를 수리하여 큰 도량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29] 그러므로 최성지 부부의 대장경 간행은 부모를 위한 원찰인 천화선사 봉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모습은 이보다는 뒷시기이기는 하지만 이색이 아버지 李穀의 유업을 이어받아 神勒寺에 대장전을 짓고 대장경을 인출하여 봉안하였던 사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려후기가 되면 사적으로도 부모를 추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경을 인출하여 봉안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동안의 고려시대사 연구에서 최성지-최문도 부자는 성리학 수용과 관련하여 주목되었으나,[30] 이들은 불교를 신앙하고 절을 중수하며, 대장경을 인출하여 봉안하는 불사

26) 九州國立博物館, 위의 책, 29면.
27) 馬場久幸, 2019 앞의 논문, 44-45면.
28) 위의 논문, 47면.
29) 崔瀣,「禪源寺齋僧記」『東文選』권68.

를 성취하여 공덕을 쌓고자 하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지배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최문도의 사례는 아버지가 진행하던 대장경 간행 불사를 아들이 이어 완성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원간섭기 성리학을 대표하는 부자였다는 점, 간행한 대장경을 집안에서 중창한 사찰에 봉안했다는 사실 등에서 이곡-이색 부자의 대장경 간행과 신륵사 봉안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대장경을 인출하여 집안의 원찰에 봉안하는 것은 고려후기 지배층의 일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으며, 13세기 이후 고려사람들에 의해 인출된 대장경이 많았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3~14세기 고려 지배층에서의 대장경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다.

한편, 일본 金剛院에 천화사 장서인이 찍혀 봉안된 고려판『대반야바라밀다경』 권271과 권441은 최문도가 아닌 卞韓國大夫人 鄭氏와 金琿(1239~1311)의 공동발원으로 인출된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최문도 묵서본은 竹紙, 변한국대부인 정씨 묵서본은 楮紙를 사용하고 있어 각각 별개로 발원하여 인쇄하였고, 나중 어느 시기엔가 하나의 세트가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31] 앞서 살펴본 용암사나 용문사의 사례처럼 기존 인출본에 훼손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권차만 인출하거나 다른 곳에서 구해 채워 넣기도 했으므로 별개로 조성된 최문도 인출본과 변한대부인 정씨 인출본이 나중에 합부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씨의 공동발원자인 김혼과 金恒의 관계를 고려하면, 최문도 발원본과 정씨 발원본을 아예 관련 없는 별개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한다. 최성지 처 馬韓國大夫人 金氏가 金恒의 딸이기 때문이다.[32] 정씨의 공동발원자인 金琿은 金賆의 둘째 누이와 결혼했는데, 김변의 묘지명은 金恒이 찬술하였다.[33] 고려시대 관인의 묘지명은 망자 혹은 망자의 후손과 잘 아는 사람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김훤은 자신이 묘지명을 짓게 된 것은 김변과는 姻親으로서 각별한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혼과 혼인했던 김변의 누이가 1278년(충렬왕 4)

30) 고혜령, 2005「원 간섭기 성리학 수용의 일 단면-崔文度를 중심으로」『한국중세사연구』18; 森平雅彦, 2011「朱子學の高麗傳來と對元關係(その二)-初期段階における禿魯花・ケシク制度との接點-」『史淵』148.

31) 馬場久幸, 2019 앞의 논문, 34면.

32) 李齊賢,「推誠亮節功臣重大匡光陽君崔公墓誌銘 幷序」『益齋亂藁』권7.

33)「金賆墓誌銘」(김용선, 앞의 책, 670면).

먼저 사망했으므로 변한대부인 정씨는 김변 누이 사후 김혼이 재혼한 여성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로 보자면, 금강원에 소장된 『대반야바라밀다경』은 최성지 집안이 중심이 되어 친인척 관계로 얽힌 인물들의 참여로 인출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인물들이 공동으로 대장경을 인출한 사례는 고려 말 여러 건 확인된다. 1361년(공민왕 10) 중수된 남원 勝蓮寺는 고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시주하여 대장경을 인출한 뒤 불전 좌우에 대장경을 봉안하였다.[34] 1377년(우왕 3)에는 東北面都元帥로 있던 李成桂가 그 휘하 장수 및 정몽주 등 관료들과 함께 海陽(함경도 길주) 廣積寺에 있던 대장경을 安邊 釋王寺로 옮겨 봉안하였다.[35] 이때에도 일부 소실된 函이나 경전두루마리[軸] 등을 새로 보충하여 대장경 전질을 완성했다. 소실된 부분을 보충할 때 어디서 인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원판 대장경 인출본도 상당수가 고려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중국본일 가능성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 역시 재조대장경에서 보완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장경 인출이 여러 사람들의 집단참여로 이루어진 이유는 공덕을 쌓기 위한 것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이 큰 이유였다. 이색은 대장경을 인출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하여 나옹의 문도들에게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나옹의 문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호응하며 募緣하여 불사가 이루어졌다.[36]

고려시대 재조대장경 인출 사례로 학계에서의 중요한 연구 주제는 이색이 참여한 1381년(우왕 7)의 불사이다. 1381년 이색 발원의 대장경 인출[37]이나 廉興邦 발원의 대장경 인출은 모두 재조대장경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염흥방 발원 대장경은 현재 일본 오타니대학(大谷大學)에 소장되어 있는데, 재조대장경의 전체가 인쇄되어 현전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인출본이다. 오타니

34) 李穡, 「勝蓮寺記」 『牧隱文藁』 권22.

35) 「釋王寺藏經碑」 『韓國金石全文』 중세 하.

36) 남동신, 2013 「이색의 고려대장경 인출과 봉안」 『한국사연구』 163, 158면; 강호선, 2011 『高麗末 懶翁慧勤 硏究』,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57-259면.

37) 李崇仁, 「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 『陶隱集』 권4.

대학 소장 재조대장경은 염흥방이 발원하고 이색이 발문을 지은 것인데, 같은 해 이색이 나옹 문도의 도움을 받아 대장경을 인쇄하여 신륵사에 시납하고 있고,[38] 또 1414년(조선 태종 14) 신륵사에 있던 대장경을 일본에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어[39] 오타니대학 소장본과 이색이 나옹 문도의 도움을 받아 인출한 대장경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40]

이상과 같이 14세기 활발하게 이루어진 대장경 인출에는 轉藏法會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41] 용암사나 신륵사 모두 대장경 봉안이 완료된 뒤 전장법회를 개최하였으며, 1330년대 復丘가 白羊寺를 중창한 뒤 중국에서 대장경을 마련해와 전장법회를 개최한 것,[42] 이곡이 1350년(충정왕 2) 모친상에 轉經하였던 것,[43]

---

38) 이색의 대장경 인출 당시 나옹 문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남동신, 2006「목은 이색과 불교 승려의 시문 교유」『역사와현실』62; 강호선, 2011 앞의 논문.

39)『太宗實錄』권28, 태종 14년 7월 11일 임오.

40) 박상국은 오타니대 소장 고려대장경은 1381년 염흥방과 이색 발원으로 인출하여 신륵사에 봉안했다가 1414년 태종이 일본에 하사한 것, 즉 오타니대 소장본과 이색이 나옹 문도의 도움으로 인출한 대장경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상국, 2008「대곡대학의 고려판대장경」『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일본 대곡대학 소장 고려대장경』,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은우와 신은제도 오타니대 소장 염흥방 발원 재조대장경인출본을 이색이 신륵사에 봉안한 대장경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정은우·신은제, 2019「일본 오타니대학(大谷大學)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 연구」『문화재』52-4). 이에 대해 바바 히사유키는 염흥방이 인출한 것과 이색이 나옹의 제자들의 협조로 인출한 것은 별개의 대장경으로 보고 있는데(馬場久幸, 2008「일본 대곡대학 소장 고려대장경의 전래와 특징」『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일본 대곡대학 소장 고려대장경』,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동신은 바바 히사유키의 견해가 좀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남동신, 2013 앞의 논문, 156면). 박용진 역시 별개의 대장경이 두벌 印成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염흥방과 이색이 인출은 같이 하되 발문은 따로 붙여 각각 제작하여 시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박용진, 2012「고려 우왕대 대장경 인성과 그 성격 -이색 찬 고려대장경 인성 발문과 신륵사 대장각기를 중심으로-」『한국학논총』37).

41) 전장법회 즉 轉藏儀禮는 경전신앙에 바탕하고 있다. 고려에서 정기적으로 열린 국가적 불교의례인 藏經道場이 대표적인 전장의례이며, 사격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대장경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불사가 되었고, 전장을 통한 공덕과 신앙이 유행하면서 원간섭기 權門들은 전장을 통한 부모 추모의 형태로 여러 사원에 대장경을 갖추고 그 시설(大藏堂, 輪藏)을 마련하여 확대해 갔다고 한다(한기문, 2013「高麗時代 寺院 轉藏儀禮의 成立과 性格」『한국중세사연구』35).

高龍普의 후원으로 普光寺에 대장경을 안치하고 전장법회를 열었던 것,[44] 오관산 흥성사의 전장법회[45] 등에서 보듯 원간섭기 이래 전장법회의 성행은[46] 대장경 인출 및 사찰 봉안과 관련된 의례였다. 1378년(우왕 4) 이색이 興聖寺 주지 乃明의 청으로 지은 「五冠山興聖寺轉藏法會記」에 의하면[47] 공민왕이 흥성사를 중수하자 노국대장공주가 대장경을 시납했고, 이후 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노국대장공주를 위해 전장법회를 흥성사에서 세 차례 개최하였다고 하였다. 1365년 이후 흥성사에서 개최된 세 차례의 전장법회는 공주를 추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白雲景閑은 이보다 앞서 1357년(공민왕 6) 공민왕의 명으로 흥성사에 주석하였다. 흥성사가 공민왕에 의해 중창된 사찰이라는 점에서 경한의 흥성사 주석은 사찰 중창 후 오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었다. 경한이 남긴 小說 중 상당부분은 흥성사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聖節 설법과 해제 및 결제 설법이 여러 편 있어 그가 왕명으로 신광사에 주석하던 1365년 이전까지 수년간 흥성사에 주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사례는 아니지만, 경한의 어록에는 이때의 小參이 수록되어 있다. 단월이 대장경 전독 즉 전장법회를 경한에게 요청했던 것이다.[48] 그러므로 흥성사에서의 전장법회는 대장경을 봉안하면서 개최되었고 노국대장공주 사망 후에는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찰을 중창하며 대장경을 봉안하고, 망자를 추선하기 위해 전장법회를 개최하는 사례는 報法寺를 중창한 尹桓에게서도 보인다. 윤환은 1348년(충목왕 4) 보법사 중창공사가 끝난 뒤 강절에서 대장경을 가지고 와서 봉안하였고, 홍건적을 난으로 사찰과 대장경이 파괴되자 절을 다시 중창한 뒤 1367년(공민왕 16) 강절에서 다시 대장경을 가지고 왔다. 尹桓(1304~1386)은 해마다 부인의 기일

42) 이병희, 1997 「고려말 조선초 백양사의 중창과 경제문제」 『한국사연구』 99 · 100.

43) 李崇仁, 「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 『陶隱集』 권4.

44) 李穀, 「重興大華嚴普光寺記」 『稼亭集』 권3.

45) 李穡, 「五冠山興聖寺轉藏法會記」 『牧隱文藁』 권73.

46) 박용진, 2015 앞의 논문.

47) 1378년은 내명이 흥성사에 주석한지 11년이 되던 해로, 내명은 1367년 무렵부터 흥성사에 주석했다.

48) 白雲景閑, 『白雲和尙語錄』 上 "檀越散藏小參云 釋迦老子道 始從鹿野苑 終至跋提河 於是二中間 未曾一字 此道 只如今日檀越 請衆所轉藏經 從甚麽處得來"(『韓國佛敎全書』 6, 649면).

과 자신의 생일 두차례 전장법회를 개최했는데, 자신의 죽은 뒤에는 생일이 아닌 기일로 전장법회일을 바꾸고자 했다.[49] 윤환이 처음 절을 중창하면서 "大藏經不可無"라 하여 강절에서 대장경을 가지고 들어온 일이나, 절을 재차 중창하면서 또다시 대장경을 갖춘 일은 14세기 고려 지배층들에게는 사찰을 운영한다면 대장경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뒤 전쟁으로 훼손된 사찰에 대한 중창불사는 오랜기간 계속되었다. 원래 고려에서는 사원 중수는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원간섭기 이후 이러한 관념에는 변화가 생겨 국가의 힘을 빌지 않고 절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중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50] 또한 지배층 역시 원찰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사찰 중창에 적극적이어서 14세기 활발했던 사찰 중수는 대장경에 대한 수요를 낳았다. 이는 재조본의 활발한 인출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듯 원으로부터 대장경 수입이 많았던 배경이었다. 또한 이렇게 대장경을 간절히 갖추고자 했던 이유로는 부모나 아내 등 망자를 추선하기 위한 이유도 컸다. 신륵사의 이곡과 이색 부자, 염흥방의 대장경 인출, 천화사의 최성지-최문도 부자, 흥성사의 노국대장공주, 보법사의 윤환부부 등에서 잘 드러난다. 이처럼 대장경을 전독하는 전장법회는 사찰을 중창하며 대장경을 갖춘 공덕을 위한 법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망자추선의 대표적인 의례였던 것이다.

한편, "대장경을 寫成한 것이 金字, 銀字, 墨字가 있다"는 「대장경이안기」나 1281년(충렬왕 7) 廉承益이 자신의 집을 金字大藏寫經所로 삼기를 청했던 일,[51] 1328년(충숙왕 15) 완성된 금으로 사경한 130권본의 밀교대장경[52] 등은 13세기 말~14세기 대장경의 인출 외에도 사경으로 만들어진 대장경도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49) 李穡, 「報法寺記」 『牧隱文藁』 권6.

50) 강호선, 2013 「13세기 江都 및 開京의 사찰 운영」 『대구사학』 110, 33면.

51) 『高麗史』 권20, 세가20, 충렬왕 7년 3월.

52) 李齊賢, 「金書密敎大藏序」 『益齋亂藁』 권5.

2) 14세기말 해인사의 대장경 인출 문제

13~14세기 재조대장경 인출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의 발굴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고려말 문집에 등장하는 해인사 소장 대장경판의 성격이다. 현재 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경은 대몽항쟁기 대장도감의 주관하에 판각되어 강화도 판당에 보관되어 있다가 1398년(태조 7) 한양을 거쳐 해인사로 이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경판을 말한다. 『태조실록』에 강화 선원사에서 대장경 목판을 운반하여 해인사로 이안하는 과정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기 때문에[53] 현재 해인사에 있는 재조대장경판이 태조 7년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이운되었음은 일단은 분명한 사실로 봐야 할 것이다.[54]

1392년(태조 1) 윤12월 왕명으로 시작된 대장경 인출은 조선건국 후 최초의 공식적인 대장경 인출이자, 조선건국 후 1398년 해인사로 재조대장경판을 옮기기 이전 확인되는 유일한 인출사례이다. 이때의 인출을 우선 살펴보는 것은 고려말 기록에서 확인되는 해인사 소장 대장경판의 이해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392년 윤12월 태조는 鄭摠에게 대장경을 인간할 발원문을 지으라고 하였다.[55] 이듬해인 1393년(태조 2) 10월 대장경 인출이 마무리되면서 演福寺 5층탑 안에 안치되었고,[56] 權近은 왕명을 받아 소문을 지었다.[57] 연복사는 개성에 있던 사찰로, 고려시대에는 普濟寺로 불렸던 절이었으나, 고려 말 어느시기엔가부터 연복사로 사명이 바뀌었다.[58] 공양왕대 연복사 중창을 둘러싼 논쟁은 고려말 배불론의 핵심논쟁 중 하나였다. 공양왕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연복사 중창불사는 배불론에 막혀 중지되고 말았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태조는 조선 건국 후

53) 『太宗實錄』 권14, 태조 7년 5월 10일 병진; 태조 7년 5월 12일 무오.

54) 대장경 이운 과정에 대해서는 한상길, 2011 「고려대장경의 해인사 이운 시기와 경로」 『불교학연구』 30 참조.

55) 『太祖實錄』 권2, 태조 1년 윤12월 4일 경진. 鄭摠의 『復齋集』에는 왕명으로 찬술한 佛道疏가 5건 전하나, 여기에 대장경과 관련된 글은 없다.

56) 『太祖實錄』 권4, 태조 2년 10월 17일 기축; 權近, 「演福寺塔重創記」 『陽村集』 권12.

57) 權近, 「演福寺行大藏經披覽疏」 『陽村集』 권28.

58) 김수연은 충렬왕말~충숙왕 즉위 초의 어느 시점에 보제사에서 연복사로 사찰명이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김수연, 2019 「고려시대의 普濟寺(演福寺)의 佛事와 성격 변화」 『이화사학연구』 59, 180면].

곧바로 연복사 중창불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태조의 연복사 공사는 조선 건국 후 도성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거대한 국가불사였다. 이 불사의 주요 공역 중 하나는 탑을 새로 짓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연복사 5층탑은 화려한 단청이 더해진 목탑으로 세워졌고 그 안에 대장경을 인출하여 봉안함으로써 절과 탑을 장엄하였다.[59]

그렇다면 연복사에 봉안한 대장경은 어디에서 인출한 것일까? 1398년 이전에는 대장경판 이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연복사가 개성에 있던 절이라는 점 등은 강화도에서 대장경을 인출하여 연복사에 봉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즉, 1398년 대장경 이운 이전까지는 재조대장경판은 강화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해인사에 전하는 태조의 발원문(「태조2년 印經跋文」[60])은 1393년 연복사에 봉안된 대장경이 해인사에서 인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발원문에는 대장경을 인출한 장소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해인사주지 敬南이 참여하고 있고, 同原者 중 지방관을 보건대 인경장소는 해인사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출한 대장경의 봉안처는 「태조2년 인경발문」에는 古塔으로만 되어 있지만, 당시 정황으로 보건대 연복사 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61]

이 문제는 고려 말 재조대장경판의 소장처 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고려 말 문집에서 언급되는 해인사 대장경판의 성격과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59) 조선전기 蔡壽나 兪好仁 같은 사대부들은 송도에 유람을 가서 연복사 5층탑에 올라갔다고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연복사의 전각이나 비석, 종을 본 것은 기록했으나 원래 탑 안에 있었던 대장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들이 유람을 갔던 15세기말 연복사탑 안에 있던 대장경은 이미 없어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60) 태조 2년 대장경을 인출하면서 쓴 태조의 발원문과 당시 불사에 동참한 왕실, 관료, 지방관, 승려의 명단이 새겨진 목판으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오용섭은 이 발원문의 찬자를 정총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자료는 「태조2년 인경발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사발원문을 어느시기엔가 목판에 새겼던 것(원각본)과 원각본이 마멸되자 후대에 다시 새긴(후각본) 두 종류가 전한다. 원각본에는 제목이 없으나 후각본에 "印經跋文"이라는 卷首題名이 있다. 이 글은 발문이 아닌 발원문이 맞지만, 후각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문이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발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오용섭의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오용섭, 2000 「同願者로 본 太祖2年 印經考」『서지학연구』 20).

61) 위의 논문, 48-53면.

『陶隱集』(이숭인)과 『牧隱詩藁』(이색)에 해인사 대장경판이 언급되고 있는데, 『도은집』에 수록된 이숭인의 시 가운데 2편은 睡菴 文長老가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쇄한 것에 대한 글로, "宴坐翻經子"라는 표현에서 수암장로가 해인사에서 飜刻하여 경판을 만들어 대장경을 찍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62] 또한 1381년(우왕 7) 이색이 나옹 문도들의 도움을 받아 신륵사에 봉안할 대장경을 인출할 때[63] 나옹의 제자가 해인사에 가서 대장경을 인출하였다.[64] 이때의 일을 전하는 이색의 시에 "全藏을 인경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신륵사 대장경각에 있었던 대장경은 해인사에 있던 경판에서 인출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65]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고려 말 해인사에 대장경판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확언할 수는 없으나 현존 자료로 볼 때 고려 말 해인사 소장 대장경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재조대장경 조조 이후 여러 사찰에 반사되었던 정황으로 미루어 해인사에 반사된 대장경을 번각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고려 말 해인사의 대장경에 대해서는 재조대장경이 아닌 다른 대장경일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에 예종대 遼本大藏經 즉 거란장의 전래를 전하며 당시 들어온 요본대장경 3부 중 하나가 해인사에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66] 또한 해인사에는 재조대장경판 외에 고려시대 사간판 등도 있었기 때문에 수암장로가 번각하여 찍은 경판이 과연 무엇인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슷한 시기 해인사에서 인출하여 신륵사에 봉안한 대장경판의 성격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62) 李崇仁, 「淸涼長老傳睡菴書」 「睡菴文長老印藏經于海印寺戲呈」 『陶隱集』 권3.

63) 李崇仁, 「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 『陶隱集』 권4.

64) 李穡, 「送懶翁弟子印大藏海印寺」 『牧隱詩藁』 권28.

65) 박용진은 이색이 신륵사 시납 대장경을 해인사에서 인출하면서 '全藏'이라는 표현했으므로 대장경판이 해인사에 있었겠지만, 해인사 소장 경판 전체를 말하는 것일 뿐 또다른 경판이 강화도 판당에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하였다. 나옹의 문도들이 대거 참여한 이색의 대장경 인성불사에서 강화도 판당과 관련된 기록이 없는 점은 해인사 인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박용진, 2012 앞의 논문, 108-109면).

66) 一然,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 「前後所藏舍利」 "又天成三年戊子 默和尙入唐 亦載大藏經來 本朝睿廟時 慧照國師奉詔西學 市遼本大藏三部而來 一本今在定惠寺[海印寺有一本 許參政宅有一本]"

또한 앞서 살펴본 태조 2년의 대장경 인출이 해인사에서 이루어져 연복사탑에 봉안된 것이라면,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태조 2년의 인출본을 재조대장경 인출본으로 본다면 재조대장경판은 1398년 이전 이미 해인사에 있었던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태조실록』의 내용 그대로 1398년에 해인사로 대장경판이 이운되었다고 한다면, 여말선초 해인사에는 또 다른 대장경판이 봉안되어 있었던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새롭게 왕업을 열면서 국왕이 주관하는 대장경 인출을 재조대장경이 아닌 해인사에 있던 대장경판으로 선택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67]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조 2년의 해인사 대장경 인출의 유일한 근거인 "태조2년 인경발문"에 대한 사료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해인사가 아닌 다른 지역이나 사찰에서 인경한 사실을 새긴 인경발문판이 해인사로 옮겨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68] 그리고 조선시대 "태조2년 인경발문" 등 해인사의 사적을 모아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간행된 『海印寺 事蹟』에는 고려 문종 때 대장경판을 해인사에 봉안했다는 역사적 사실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 「海印寺事籍碑」 등도 수록되어 있어 기본적으로는 조선후기 이후의 해인사측의 인식을 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69] 이처럼 고려 말 해인사에 있었던 대장경판이 무엇인지, 현재의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판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논란의 소지가 많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는 해인사장 고려대장경판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67) 오용섭은 태조가 즉위하자 곧 발원문을 준비하였고, 개국공신 위주로 중앙과 지방의 실세관료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棟梁僧만 21명이나 되고, 인경한 대장경을 千函萬軸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사찰판이나 소규모 경전 인출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오용섭, 2000 앞의 논문, 51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68) 위의 논문, 48면.

69) 『海印寺事蹟』의 다양한 간본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김영선, 2000 「≪海印寺事蹟≫ 刊本考」 『서지학연구』 19.

3. 고려와 금 · 원의 불교교류와 대장경 유통

983년 완성된 북송장은 고려전기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려에 수입되었다. 고려전기 고려의 개보장, 거란장의 수용은 그것이 고려의 초조대장경의 판각으로 이어지고, 다시 재조대장경 판각시 고려장과 함께 개보장 및 거란장이 다시 활용되었던 만큼 고려전기의 문화교류사에서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이었다. 이러한 고려전기의 대장경 수용은 대개 고려-송, 고려-요 양국 간의 국가 간 외교라는 측면이 강하였다. 일반 관인이나 승려가 사적인 필요에 의해 송에서 혹은 요에서 대장경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거나 혹은 송이나 요에서 고려인이 주도하여 대장경 인출 불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게 보인다.

중국에서의 대장경은 송과 요에 이어 계속 조성되었는데, 초조대장경 완성 이후 중국에서 다시 조조된 대장경은 金藏이다.[70] 금의 대장경은 1149년(金 皇統 9) 비구니 崔法珍(?~1183?)의 발원으로 시작되어 1173년(金 大定 10) 완성되었으며, 趙城藏으로도 불린다. 당시 완성된 대장경판은 中都(현재의 북경)에 있던 弘法寺로 이안되었다. 조성장은 고려대장경과 마찬가지로 북송 개보장의 계열에 있는 대장경으로 알려져 있다. 원이 대도지역을 차지한 이후 조성장은 원에서 여러 차례 보수 및 수정되었고 또한 원에서 경전을 새로 간행할 때 대교본으로도 중요하게 활용되었는데, 원대 대도 지역 뿐만 아니라 강남의 吳興에서도 대교본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금과 원대 중국 화북과 강남지역에서 두루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시기인가 그 존재가 잊혀져 1580년대 嘉興藏을 판각을 준비할 때 이미 발원자 최법진에 대한 전승만 남아 있었을 뿐 조성장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성장이 실체를 다시 드러낸 것은 1932년 산서성 趙城縣 廣勝寺였다.[71]

---

70) 趙成藏은 開寶藏의 복각본이다. 그러나 조성장에 수록된 경전 중에는 개보장이나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지 않은 경전도 있다[李際寧(박순희 옮김), 2015「금장본『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소』고찰」『고려 재조대장경과 동아시아의 대장경』,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朴鎔辰, 2017「麗元交流期 高麗藏と趙成藏」『印度學佛教學研究』65卷第2号].

71) 조성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Dewei Zhang, 2014 "An Unforgettable Enterprise by Forgotten Figures: The Making of the Zhaocheng Canon 趙成藏 in

재조대장경이 1236년(고종 23) 판각을 시작했으므로 조성장은 재조대장경보다 먼저 완성된 대장경이었다. 조성장은 개인의 발원에 의해 그리고 개별 시주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대장경이어서 관판이라기보다 私刊이지만, 완성 이후 판목이 조정에 헌납되어 中都의 사찰에 봉안되었다는 점에서 금을 대표하는 대장경의 위상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원에서 太宗 오고타이나 世祖 쿠빌라이 등 카안의 명으로 경판을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원에서는 弘法藏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조성장은 원에 들어와 원의 관판대장경의 저본이 된 셈이다. 원 세조의 명으로 만들어진 대장경목록인『至元錄』의 성립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원에서의 위상 역시 관판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延祐연간 원에서 조성된 관판대장경인 延祐藏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조성장과 고려 대장경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재조대장경『別譯雜阿含經』의 校勘記를 통해 고려대장경과 조성장이 북송 개보장 계통으로 동일한 계통의 대장경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있어 조성장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72] 이것이 재조대장경과 조성장의 관련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즉, 이전의 북송 개보장이나 요의 거란장이 고려 초조대장경 간행 및 재조대장경 교감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뒤에서 살펴보듯이 원대의 여러 대장경들이 고려인에 의해 인출되거나 원의 지배층에 의해 인출되어 고려에 기진되는 방식으로 유통되었으며, 방산석경의 경우 원대 고려인의 후원에 의해 보수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조성장의 경우에는 고려와의 교류나 상호 영향관계가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와 중국의 불교 교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고려와 金과의 불교 교류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무엇보다도 자료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기 힘들기 때문인데, 자료상의 문제로 단언할 수 없고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려-중국의 교류에서 불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다른 왕조와의 차이는 분명히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금에서 불교가 억압받았던 것도 아니어서 남송에서 강남불교가 전개되는

North China under the Jurchen Regime", *Zinbun* 44.

72) 朴鎔辰, 2017「麗元交流期 高麗藏と趙城藏」『印度學佛教學研究』65-2.

동안 북쪽의 금에서는 당-요를 계승한 화북불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금장의 조성이나 『眞心眞說』[73]의 편찬 등은 금대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금장과 금에서의 화엄종과 자은종의 모습은 금의 불교 역시 원나라 불교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74] 고려와 금의 불교교류 문제는, 주목할 만한 교류가 없었다면, 유독 금과의 관계에서만 교류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에 비해 고려와 원의 대장경 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려-원의 대장경교류에서 주목되는 측면 중 하나는 왕실을 통한 즉 공식적인 교류 못지않게 개인적인 교류와 인출이 활발했다는 점이다. 이는 원간섭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원에서 간행된 대장경은 앞서 언급한 官版인 弘法藏 외에도 남송의 대장경 사업을 계승하여 사적으로 이루어진 磧砂藏,[75] 普寧藏[76] 등이 있다.[77] 금장도 판각 자체는 관판이 아닌 사판이었고, 남송이나 원에서도 사적으로 이루어진 대장경 개판이 있었던 것처럼 대장경 판각은 관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고려와 달리 중국에서는 "私版"[78]의 대장경도 조성되고 있었다. 중세 한국과 중국에서의 대장경 조조는 국가가 주도하는 官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장경에의 入藏은 왕권에 의해 인정받은 "正藏"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2세기 중반 이래 중국에서는 사판의 성격을 갖는 대장경 조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완성을 본 것은 13~14세기 동아시아에서 사적인 대장경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었던 배

73) 『진심진설』에 대해서는 최연식, 2002「『眞心直說』의 著者에 대한 새로운 이해」『진단학보』 94 참조.

74) 금대의 화엄종, 자은종에 대해서는 竺沙雅章, 『宋元佛教文化史研究』, 汲古書院 참조.

75) 적사장은 남송대 平江府의 磧砂延聖院에서 조성되다 남송 멸망 후 중단되었던 것을 원대 다시 판각하여 완성하였다.

76) 송의 사계장이 남송말 소실된 뒤 강남지역에서 백운종을 중심으로 1277년(지원 14) 항주 대보녕사에서 개판하여 1290년 완성한 대장경이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각이나 입장이 더해졌다.

77) 원 대장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竺沙雅章, 1999「元代の大藏經」『大谷學報』79; 李際寧, 2008「關於近年發現的 ≪元官藏≫」『國際仏教學大學院大學研究紀要』12.

78) 官版에 대응하여 사적으로 조조한 대장경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경이 되었다. 물론 관판 대장경의 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판의 성행은 중국에서 대장경을 들여오는 고려의 경우 선택지가 확장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대장경 조성이 갖는 불교적, 문화사적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덕신앙은 대장경 조성과 인출, 유통을 성행하게 한 신앙적 배경이었다. 초조대장경을 관판으로 조조한 이래 사적인 인출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왕명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한 官版 즉 고려대장경과는 달리 元版은 사적 인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려후기 재력을 바탕으로 원판 대장경을 수입하여 사원에 시납하는 공덕신앙이 전개되었다는 분석은 고려 재조대장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대장경이 성행했던 원인이었다.[79] 그러나 보문사에서의 허평 부부의 대장경 인출이나 승련사의 인출 사례 등 왕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이색이나 염흥방의 인출 역시 왕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적어도 원간섭기 이후에는 관판 즉 재조대장경이라 할지라도 이전시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원대 조성된 대장경의 인출본 중에는 고려인의 발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기록과 실물로 확인되며, 이 중에는 고려로 들어와 절에 봉안된 사례들도 있다. 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지배층들이 원의 대장경 인출에 참여했는데, 대개 지배층인 이들의 활동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충선왕이다. 또한 고려의 불교사찰을 중창하거나 불사를 열었던 원의 지배층들 역시 원에서 인출한 대장경을 고려사찰에 봉안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인출된 원판 대장경은 관장, 적사장, 보녕사장 등 다양한데, 실물이 전하는 경우 대개 일본의 사찰이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중국에서 유물을 보수 수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여 관련된 자료는 계속 추가되고 있다. 원간섭기 고려-원 간의 대장경 교류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려대장경이 원으로 전해진 경우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304년~1306년 고려를 방문했던 鐵山紹瓊은 강화도 普門社에 봉안되어 있던 3부의 고려대장경 중 한 부를 가지고 돌아갔다. 그리하여 중국 江西 大仰山寺에 봉안했는데, 당시 철산이 고려에서 대장경을 구했던 것은 앙산사에 있던 대장경 중 결락

79) 박용진, 2012 앞의 논문.

이 많아 그것을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보문사에서 철산이 가지고 간 대장경은 허평과 그의 아내 廉氏가 함께 인출한 것으로, 철산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대장경 인출 당사자인 허평이 철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사되었다.[80] 이를 통해 고려 재조대장경이 원에 전해졌음이 확인되나 그 외의 다른 사례는 현존자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의 활발한 불교 교류와 양국 모두에서 유행했던 대장경 인출 열풍 등을 고려한다면 이외에도 고려 대장경 인출본이 원에 전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원의 대장경이 고려에 전해진 사례나 원에서 고려인들이 대장경 인출에 참여하거나 주관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당시의 대장경을 통한 교류를 살펴보기 용이한 편이다.[81] 현재 대곡대에 있는 『正法念處經』 1첩과 교토대학 소장 『五分比丘尼戒本』은 원의 적사장을 인출한 것인데, 金祿과 부인 朴氏의 발원과 시주로 인출된 대장경 일부이다. 원에서 인쇄하여 고려의 子菩寺에 봉안하였다. 車信의 딸인 星山郡夫人 車氏가 1314년(충숙왕 1) 인출한 원판 대장경도 있으며, 지정연간(1341~1367) 典校寺丞 李允升이 부인 尹氏와 함께 발원하여 인출한 원판 대장경을 전라도 古阜郡 萬日寺에 봉안한 사례도 있다.[82]

원에서 대장경 인출을 했던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충선왕이다. 충선왕은 1305년(충렬왕 31)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眞金(裕宗)의 비 裕聖皇太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대도에 있던 大慶壽寺에 대장경 1부를 시납하였다.[83] 1312년에는 보녕사장 대장경 50부를 인출하는 불사를 시작하여[84] 이듬해 일대의 11개

80) 고려대장경을 앙산사로 이안한 것을 비롯하여 철산의 고려에서의 활동은 허평과 김순 등 당대 "재상지종"으로 불리던 孔巖許氏와 彦陽金氏를 비롯한 최고 귀족가문의 고위관료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대장경이안기」의 글씨를 쓴 김순의 처는 허평의 둘째 누이이다(강호선, 2000 「14세기 전반기 려·원불교교류와 임제종」,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44-45면).

81) 박용진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고려인의 願文이 수록된, 일본에 있는 사례들은 박용진의 논문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 논문에 의하면 현전하는 고려인 발원의 원판대장경은 일본에 일부 전하고 있는데, 적사판, 보녕사판, 원관판으로 구분되며, 보녕사판이 가장 많다고 한다(박용진, 2012 앞의 논문).

82) 梶浦晋(이원석 옮김), 2015 「일본 소재 고려판대장경의 현상과 특색」 『고려 재조대장경과 동아시아의 대장경』,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31-232면.

83) 程文海, 「大慶壽寺大藏經碑」(장동익, 1997 앞의 책, 131-133면).

사찰(上天竺寺, 下天竺寺, 集慶寺, 仙林寺, 明慶寺, 演福寺, 慧因寺, 崇先寺, 妙行寺, 靑蓮寺, 惠力寺)에 시납하였다. 또한 慧因寺에 대해서는 내탕을 내어 절을 중건하게 하고, 별도로 金字大藏經도 시납하였다.[85] 당시 충선왕이 인출했던 대장경의 실물은 일본과 중국에 여러 건 남아 있다. 이중에는 충선왕의 발원문이 남아 있어 충선왕 인출본임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발원문은 없지만 '瀋王府' 주인이 찍혀 있어 충선왕 인출본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인출본이 어떤 경로로 일본으로 전해졌는지 확인되는 경우는 없다. 중국에서 곧장 일본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지만 14세기 전반기 어느 시기엔가 고려로 이동되었다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86] 이중 일본 南禪寺에 소장된『解節經』의 경우 심왕부 주인이 찍혀 있고, 1312년 심왕 왕장 즉 충선왕이 쓴 발원문이 있다. 또한『불본행집경』에도 충선왕의 발원문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1984년 북경 智化寺 如來殿의 복장물로 발견된 총 3종의 원대 대장경 중 심왕 왕장이 인출한『付法藏因緣經』1책이 있었다.[87]『부법장인연경』역시 보녕장을 인출한 것으로, 표지 뒷면에 심왕부 주인이 찍혀 있고, 1312년 충선왕이 쓴『해절경』과 동일한 내용의 발원문이 있음이 확인되었다.[88] 1312년 충선왕은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의 명복을 빌며 보녕장을 인출하였던 것이다. 이외에 일본에서는 발원문 없이 심왕부 주인만 있는『해절경』,『相續解脫地婆羅蜜了義經』,『緣生初麗福淸去本經』,『十誦律』,『四分律藏』등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충선왕이 인출했던 보녕장 중 현전하는 경전은 대략 파악되어 있는데, 대부분 일본에 전하고 있으나『부법장인연경』처럼 중국에서 새롭게 발견된 경전도 꾸준히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 불교계에서의 충선왕의 활동은 당시 원에서 충선왕을 모시던 수종

84) 1312년의 보녕사판 인출은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85) 충선왕의 혜인사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기록은『혜인사지』에 잘 나와 있다.

86) 남권희, 2007「일본 남선사 소장의 고려 초조대장경」『서지학연구』36.

87) 許惠利, 1987「北京智化寺發見元代藏經」『文物』8期.

88) 충선왕이 쓴「解節經序」는『원대려사자료집록』(장동익, 1997 서울대출판부, 140면)에 수록되어 있다.

신들의 불사로도 이어졌다.[89] 항주 혜인사에 대한 후원은 충선왕의 대표적인 활동이었는데, 이때 충선와 수종신이었던 元瓘은 대장경 1부를 인출하여 혜인사에 시납하였다.[90] 그는 이전에도 이미 安珦과 함께 대장경을 인출하여 四明山 天童寺에 기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충선왕 재원시기 충선왕을 모셨던 朴景亮도 1314년 대장경 1부를 인출하였는데, 그는 이 대장경을 고려로 들여 神孝寺에 봉안한 것이 주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 대장경을 고려인들이 인출한 사례는 여러 건 확인되며, 자보사, 만일사, 신효사 등에 봉안되었던 것처럼 고려로 경전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지배층들 사이에는 원판 대장경을 인출하는 것이 상당히 성행했음을 짐작케 한다. 실물이 전하지는 않지만, 사료를 통해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傳燈寺. 吉祥山에 있는데, 원 나라 지원 19년(1282)에 충렬왕의 元妃 貞和宮主 王氏가 중 印奇에게 부탁하여 바다를 건너 송에 들어가 대장경을 인쇄해 와 이 절에 보관했다. 이색의 시에, "蠟屐 신고 산에 오르니 흥이 절로 맑은데, 전등사 늙은 중이 나의 행차를 인도하네. 창 밖에 먼 산은 하늘 끝에 벌려 있고, 樓 밑에 부는 바람 물결 쳐 일어나네. 星歷은 伍太史가 까마득한데, 구름과 연기는 三浪城에 참담하여라. 정화궁주 願幢을 뉘라서 다시 세울 건가. 壁記에 쌓인 먼지 객의 마음 상하네." 하였다.[91]

위의 인용문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내용이다. 1282년 충렬왕비 정화궁주가 배편으로 중국에서 대장경을 인출하여 전등사에 봉안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언급된 송의 대장경은 적사장이거나 보녕장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친원세력이었던 趙仁規의 아들로 원의 불교계에서 주로 활동했던 천태종승 義旋이 고려로 돌아오면서 보녕사장 대장경을 가지고 왔던 일

89) 충선왕과 수종신의 대장경 인출은 다음의 두 논문을 참고하였다. 강호선, 2000 앞의 논문; 박용진, 2012 앞의 논문.

90) 『慧因寺志』 권6, 「高麗國僉議贊成事元公捨大藏經記」. 이 비문은 「고려국대장경이안기」와 마찬가지로 민지가 찬술하고 김순이 글씨를 썼다.

9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2, 京畿 江華都護府 佛宇 傳燈寺.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의 번역을 따랐다.

도 확인할 수 있다.[92] 이 시기 조인규家가 원에서 인출한 대장경의 실물이 일부 현존한다. 이중 일본 西福寺에 있는『대반야바라밀다경』권1, 11, 21은 보녕사판인데, 조인규의 아들인 趙璉(?~1322)의 발원문이 남아 있어 조련이 인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326년에 조련이 발원문을 쓴 이 대장경이 고려의 어느 사찰에 봉안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93] 다만, 조련의 손자인 趙浚이 경상도 지역을 유람하다 들렀던 得益寺 大藏殿이 조련이 인출한 대장경과 관련된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趙浚은 1382년(우왕 8년) 경상도 지역에 파견되었다. 이때 善州(경북 선산)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得益寺에 들렀는데, 大藏殿의 현판에 忠肅公 즉 조련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여 시를 남겼다.[94] 조련이 대장경 봉안이 아닌 대장전 건립에 참여한 시주자로 현판에 이름을 남겼을 수도 있지만, 대장전 건립에는 대장경 봉안이 함께 수반되었고, 대장전을 짓고 원에서 수입한 대장경을 봉안하는 일이 지배층 사이에서 상당히 성행하였으며,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사찰에도 대장경을 봉안하는 사례가 많았던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득익사는 조련 발원 보녕사판 대장경의 봉안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말 문하시중을 역임한 尹恒은 1348년(충목왕 4)과 1367년(공민왕 16)의 두 차례에 걸쳐 원의 江浙지역에서 대장경을 구입하여 보법사에 봉안하였다. 원에서 資政院使를 지낸 高龍鳳도 1334년(충숙왕 복위 3) 대장경을 인출하여 전주 인근의 萬德山 普光寺에 봉안하였는데,[95] 고려판인지 원판인지는 알 수는 없다.

또한 원 황실에서 직접 대장경을 고려 사찰에 봉안하는 일도 있었다. 대개 해

92) 李穀,「順菴新置大藏 李克禮州判作詩以讚 次其韻」『稼亭集』권14;「次三藏韻」『稼亭集』권18.

93) 이 대장경은 어느 시기엔가 일본으로 전해져 대마도 西福寺에 소장되었다가 현재는 對馬歷史民俗資料館에서 보관하고 있다.『대반야바라밀다경』599첩으로, 1326년(태정 3) 고려 門下省僉議贊成事 조련이 인출하였다(馬場久幸, 2016『日韓交流と高麗版大藏經』, 法藏館, 184면; 박용진, 2012 앞의 논문, 249면).

94) 趙浚,「道過善州 偶入得益寺 有先祖題名 感歎不已 因題一絶」『松堂集』권1 "吾家忠肅佐忠宣 將相功名四十年 此日來遊天幸耳 空瞻函丈淚如泉"

95) 李穀,「重興大華嚴普光寺記」『稼亭集』권3.

당 고려사찰을 황제나 황태자, 혹은 황후의 원찰로 삼고 절을 중창하면서 대장경 봉안이 이루어졌다. 1327년(충숙왕 14) 원 晉宗妃 泰定皇后가 춘천 청평사를 태자를 위해 기도할 원찰로 삼고, 여기에 대장경을 봉안하고 황태자와 황자의 복을 빌게 하고, 매년 그들의 생일에 반승하고 대장경을 轉讀하게 하였다.[96] 이 대장경 역시 원에서 인출한 것을 청평사에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때의 일을 기록한 비석의 음기에는 대장경을 인출하여 가지고 온 전말을 적고 있어 이 시기 원 황실에서 발원하여 고려 사찰에 대장경이 안치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97] 이 음기에 의하면 儀鸞局大使 李允堅이 敬和翁主 王氏와 함께 대장경 한 질을 인출한 뒤 황제의 명으로 不花帖木兒와 性澄이 대장경을 가지고 왔다. 이 불사는 원에서 활동한 환관을 비롯하여 고려의 관료(전체적으로 원의 관직을 가진 이들이 많다), 심왕 왕고, 경화옹주를 비롯한 3人의 고려왕실 출신의 여인들이 참여하였다.

奇皇后도 대장경을 인출하였는데, 기황후의 발원문에 따르면 1344년(元 至正 4) 기황후는 대장경을 2부를 인출하여 大都의 慶壽寺와 고려 해주 神光寺에 각기 봉안하였다.[98] 또한 이 무렵인 1343~1345년의 3년간 기황후는 금강산 長安寺를 중창하고 상주비용을 마련해 주었다. 이때 기황후는 장안사에 은으로 사경한 대장경 한 부를 봉안하였다고 한다.[99] 이러한 13~14세기 고려와 원 간의 대장경 교류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자료 발굴을 기대해 볼 만한데, 자료가 쌓이면 14세기 대장경 교류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에서 고려인에 의한 대장경 사업 중 주목되는 것은 房山石經이다. 방산석경은 隋의 승려 靜琬이 말법사상의 영향을 받아 조성한 이래 당, 요, 금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석경 대장경이 조성된 곳이다. 그런데, 1341년 문수주처인 오

96) 李齊賢,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益齋亂藁』 권7.

97) 비석 음기는 다음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전문이 판독 및 해석되었다(정병삼, 2012 「文殊寺藏經碑 와 원간섭기 불교신앙의 한 경향」『한국문화』 60).

98) 기황후가 인출한 대장경 중 『대반야경』의 잔본이 일본 세이키도문고에 있는데, 『대반야경』 권21에 기황후의 발원문이 남아 있다[梶浦晋(이원석 옮김), 2015 「일본 소재 고려판 대장경의 현상과 특색」『고려 재조대장경과 동아시아의 대장경』,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33-235면].

99) 李穀, 「金剛山長安寺重興碑」『稼亭集』 권6.

대산을 방문하러 간 고려승 慧月이 이곳에 들렀다가 석경이 보관된 華嚴堂의 石戶와 경본이 손상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高龍卜과 申當住의 후원으로 경전을 보수하였다.[100] 당시 원에 있던 고려인뿐만 아니라 원의 관료와 승려 그리고 고려 승려들도 참여한 불사였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목판 대장경을 인출하거나 판각한 것은 아니지만, 또다른 형태의 대장경인 석경불사의 모습과 원간섭기 고려와 원의 교류상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이다. 또한 원 뿐만 아니라 요나 금의 불교와 대장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함께 살펴볼 자료이다.

14세기 성행하던 원판대장경의 유입은 1367년 이후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101] 무엇보다도 원명교체라는 중국 내에서의 기류변화가 이러한 상황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14세기에는 대장경 유입뿐만 아니라 승려들의 입원유학도 활발하던 시기였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선승들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강남지역이었다. 대개 육로를 통해 대도로 들어가 다시 강남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천이나 무학의 경우 남방에 변란이 발생하여 참방을 중지하고 1356년 귀국하였다. 1364년(공민왕 13) 강남유학을 떠났던 설산천희는 육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했는데, 그가 강남에서 군웅세력을 만나 고생했던 일이 그의 탑비에 전하며, 점차 입원유학 자체가 불가능한 단계로 접어들었다.[102]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원판대장경의 유입도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한편, 명에서도 국초부터 대장경은 조성되었다. 1352년(홍무 25) 조조되어 금릉 天禧寺에 봉안되었으나 얼마 뒤 판목은 불타버렸다. 그러나 이 대장경판은 홍무제 때 시작하여 1403년(영락 원년) 완성된 명 남본대장경의 모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3]

---

100) 혜월에 의한 방산석경 보수 내력은 「重修華嚴堂經本記」에 정리되어 있다. 塚本善隆의 조사에 따르면 이 비석은 원래는 제5동 뇌음동 앞에 있었으나 이후 6동 혹은 7동으로 위치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塚本善隆, 1975『塚本善隆著作集 第五卷-中國近世佛教史の諸問題』, 大同出版社, 308·317면). 비문은 『金石萃編未刻稿』 卷下(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編,『歷代石刻史料彙編』 제4편 제2책, 北京圖書館出版社, 709-710면)에 수록되어 있다.

101) 박용진, 2012 앞의 논문, 270면.

102) 강호선, 2011 앞의 논문, 116-117면.

103) 김종천, 1987「중국의 대장경간행에 대한 역사적 고찰」『상명대학교논문집』 19.

4. 맺음말

재조대장경의 저본이 되는 초조대장경 간행시 송의 開寶藏과 요의 거란장이 바탕이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개보장과 거란장이 개판된 이후에도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계속하여 대장경이 간행되어 왔다. 금의 趙成藏, 원의 관판 대장경, 원대 강남지역에서 간행된 普寧藏, 磧砂藏 등이 그것이며, 목판에 새긴 것은 아니지만, 房山石經도 금과 원에서 지속적으로 보수되고 刻經되어 왔다. 이 대장경은 상호간에 저본이나 보충본이 되었으며 원의 관판 대장경이나 고려 재조대장경처럼 국가에서 판각한 경우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원대 이루어진 磧砂藏의 추보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사찰을 중심으로 후속 보충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개보장, 요장, 금장, 원판 대장경은 서로간의 영향관계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록된 불서들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어 각각의 대장경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당시의 불교사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려의 경우 재조대장경 간행 당시 이전에 이미 조성된 金藏과의 관계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조대장경의 경우 "보유판"과 대장경 간행에 참여한 불교세력들을 살펴보면 당시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이 잘 드러난다. 또한 고려의 경우 "보유판"과 이후 "대장도감판" 불서 간행에서, 그리고 실물이 현전하지는 않지만 고려후기의 기록을 통해 재조대장경 조성과 다른 형태의 개인적인 대장경 간행(사경 포함)과 인경, 그리고 중국과의 대장경 왕래가 여러 건 확인되며, 원에서 간행된 대장경에는 고려인의 후원이 있었던 정황도 확인된다. 그동안 중국 대장경과의 비교와 교류의 문제가 주로 고려전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고려후기 역시 사상사와 교류사의 맥락에서 금, 원대 대장경의 문제와 팔만대장경이 조성되는 13세기 이후 고려대장경의 간행과 교류 문제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송에서 대장경 판각이 시작된 이래 동아시아에서의 불서유통은 인도 이래의 필사본에서 인쇄본으로 전개되었다. 인쇄본의 등장은 대장경의 대량인쇄가 가능해졌고, 많은 사찰들이 대장경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한국-중국-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대장경은 동아시아 세계의 지식 유통과 외교의 주요 매개체가 되었다.

대장경판 등장 이후 필사는 지식의 유통이라는 측면보다는 필사의 공덕 자체가 강조되었고, 이는 고려시대 금은자로 대장경을 사경하는 공덕신앙으로 이어졌다. 한편, 전근대 시기 국가에서 대장경을 편찬하는 사업은 그 자체가 조정과 왕실의 복덕을 짓기 위한 공덕의 측면도 컸고, 국가가 주도하는 대장경 편찬은 불교경전의 정본 확립에 기여하면서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되기도 하였다. 14세기 고려사회는 원과의 활발한 교류 그리고 고려 내에서 활발한 사찰 중창 불사의 시기를 맞이하여 왕실과 지배층에서는 개인적으로 대장경을 인출하여 사찰에 봉안하고자 하는 욕구가 만개했던 시기였다. 14세기 고려에서의 대장경은 국가가 인출과 유통을 관리하는 "國之大寶"에서 공덕과 사찰의 장엄을 위해, 사격을 위해, 그리고 중창주의 발원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주제어 : 고려대장경, 대장경 인출, 대장경 유통, 대장경 교류, 신륵사, 해인사, 전장법회

투고일(2020. 7. 31), 심사시작일(2020. 8. 17), 심사완료일(2020. 9. 2)

〈Abstract〉

A Study on the Printing and Circulation of Tripitaka in the East Asia and Tripitaka Koreana i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Kang, Hosun *

Tripitaka Koreana(高麗大藏經) was carved as a national Buddhist project of Goryeo. The contents and structures of the Tripitaka Koreana are closely related to Tripitaka Kaibao(開寶藏, 北宋大藏經) and Tripitaka Qidan(遼藏, 契丹大藏經) previously published in China. The issue on the printing and distribution of Tripitaka is useful for understanding Tripitaka itself and examining Buddhist exchanges, Buddhist culture, Buddhist ritual, and faith. In addition to, it is related to Buddhist temple economy. Research on the exchange of Tripitaka between Goryeo and China was focused on early Goryeo period and the First Tripitaka Koreana(初雕大藏經). However, since Zhaocheng Jin Tripitaka(趙城金藏) was completed in the Jin China in 1173, there were also Zhaocheng Jin Tripitaka in East Asia in addition to the previous three Tripitakas at the time of woodcutting of the Second Tripitaka Koreana(再雕大藏經) in the 13th Century. But, I can't find any trace of the exchange between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and Zhaocheng Jin Tripitaka. Buddhist exchange between Goryeo and Jin was also lack of activity. In case of Yuan China, Goryeo people joined in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Tripitakas in Yuan, especially the capital, Datu(大都) and Hangzhou(杭州) province. In addition to many cases, Tripitakas published in Yuan was imported into Goryeo and enshrined in Goryeo temple for dignity of temple and filial piety of patron, as well as cases in which Tripitaka Koreana was exported to Yuan. What is most notable in the Tripitaka exchange between Goryeo and Yuan was the fact that Tripitaka was published and circulated personally. Study on Publishing and circulation of Tripitaka Koreana in Goryeo and its relationships with Zhaocheng Jin Tripitaka and Yuan Trpitakas, after th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Sungshin University.

Second Tripitaka Koreana was carved, will help us understand Tripitaka tradition of East Aisa as well as Tripitaka Koreana.

Key Words : Tripitaka Koreana, Publication of Tripitaka, Exchange of Tripitaka, Circulation of Tripitaka, Sinreuksa Temple(神勒寺), Haeinsa Temple(海印寺), Jeonchang Beophoi(轉藏法會)